

# 익산시 코로나 긴급 추경

###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28개 사업 366억원 편성

### 31일 시의회 승인 즉시 행정력 총동원 신속 집행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 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민생 안정대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지역경제 피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6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추경재원은 366억원으로 코로나19 관련 확보된 국·도비와 자체재원 예비비를 긴급 활용하였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분야 154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지원 138억원 ▲감염증 방역체계 구축 9억원 등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 분야에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 43억원 ▲ 시내버스 손실액 긴급지원 6억3천만원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추가지원 5천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7억원 등의 예산을 증점적으로 편성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24일 시의회와 코로나19 위기대응 정책담당회를 통해 긴급 임시회 개최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지역경제 피해지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상임위를 거쳐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익산시는 시의회의 승인 즉시 신속히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시라도 빠른 지원이 중요하기에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신속집행 추진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그동안 코로나19에 관련된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다중이용시설 방역실시, 중국유학생 관련 긴급대응비,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목적에 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운)이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 총 7,057만 원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 “힘겨운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을”

###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성금 기탁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운)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금 운동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개됐으며, 군공노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7,057만 원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모금 운동을 주관한 군공노 김상운 노조위원장은 100만 원, 박덕하 사무처장이 50만 원을, 상임집행위원들도 15만 원씩 기탁했으며, 청원경찰도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임준 군산시장은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윤동욱 부시장 및 국장·과장·읍면동장 등 간부 공무원도 모금 운동에 동참해 코

로나19 사태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김상운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두 달간 계속된 비상근무로 공무원도 힘든 상황이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군공노는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공노에서 기탁한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사회적경제 공모 연속 선정 ‘겹경사’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등

군산시가 사회적경제 공모사업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과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구 시청광장에서 ‘사회적경제 상설장터’를 열어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은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과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신규 사업이다.

군산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육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5월 개소 예정인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의 사업 추진내용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선정돼 총 4명의 전문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2년간 지원받게 됐다.

또한, 전북도 신규 공모사업인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에도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후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생활 공구 무료 대여사업 ‘호응’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구 무료 대여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고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구 시청광장에서 ‘사회적경제 상설장터’를 열어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원하는 공구를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고장, 마모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생활공구를 보완했으며, 대여실적이 높은 공구를 추가 배치해 시민들이 생활공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생활공구 대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구의 지속적 보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자체 재원을 투입해 카드수수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었다.

시비로 지원하는 50만원 초과 금액은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해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침체 위기극복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자는 4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팩스, 휴대폰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앞으로 익산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자부담을 하고 있어 영업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의회, 긴급 임시회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30일부터 31일까지(2일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제224회 긴급 임시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원래 예정된 임시회는 아니었으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자 개최한다.

익산시의회는 24일 집행부의 의 건담회를 통해 익산시로부더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장단 및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 차단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그 규모는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 366억원 정도이다.

이에 따라 30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3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 미생물 공급방식 개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가 농업인 편의 증진과 미생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공급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용 미생물 공급은 읍면 농민상담소에 설치된 미생물 간이저장고에서 농업인이 수시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상온에서 저장 기간이 경과할수록 약효가 심해지고 미생물의 품질 저하가 우려됐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미생물 활용 농가 회원제 운영으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고, 소포장 밀폐 용기를 활용해 농가의 영농규모와 작물별 수요량에 맞게 각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해 즉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기존에 읍면 농민상담소에 비치된 간이저장고는 유용미생물 중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길고, 약취 저감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BM활성수로 총량에 활용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